

한전공대 설립 국제컨설팅 용역 발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과대학(케코텍·Kepco Tech) 설립 준비 작업이 본격화 된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공대 설립을 위한 국제컨설팅 용역이 이달 내로 발주된다.

한전공과 대학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과제명으로 한 국제컨설팅 용역은 내년 4월 1단계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용역 1단계에서는 공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다.

용역 최종 완료 단계인 2단계 보고는 내년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2단계 보고에서는 대학설립과 캠퍼스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해

한전, 이달 내 발주 예정...내년 4월 1단계 보고 '최대관심사' 캠퍼스 용역 6월 지방선거 이후

것이다.

과업 지침 중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관심사인 '대학설립 후보지' 부분이 포함된 캠퍼스 기본계획 용역 보고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감에 따라 지자체 간 용역 결과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현재 지자체로부터 부지 추천을 받지 않았지만 용역 추진과정에 부지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용역 추진과 관련된 사전 보도자료를 오는 26~27일께 언론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유일 무이 한전공대 빅 픽처(Big Picture)'를 콤팩트를 슬로건 열린 포럼에서 공대 설립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한전은 설립 초기 과감한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물적 인프

라를 조성하고, 학생의 자율성은 최대한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로 미국의 실리캔버리와 경쟁하는 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5000여억원을 들여 설립 예정인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지사 시절 이낙연 총리가 대선 공약화를 위해 조환이 한전 사장 등을 만나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문 대통령이 호남 대표공약 중 하나로 채택해 지역민의 기대감이 크다.

공약은 한전공대를 총정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영남권의 포항공과대학(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 복안이다.

동구, 마을공동체 나누는 날 성료

광주 동구가 19일 동구문화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소통마당 '동구 마을공동체 나누는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64개 마을공동체 4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마을활동 사례 소개 ▲마을활동 전시 ▲레크리에이션 등 마을과 마을이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마을사례 소개 중간마당에 영상퀴즈쇼, 댄스 따라잡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서구, 행복한 우리가정 지키기 프로젝트 운영

광주 서구가 오는 2018년 1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행복한 우리가정 지키기 프로젝트'를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한다.

이번 강의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광주준법지원센터에서 법무관 2명을 파견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주제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나는야 우리아이의 수호천사! ▲사례로 보는 성범죄 ▲부부간 법률분쟁 현명히 해결하기(혼인과 이혼) 등이다.

과정은 오는 22일 까지 총 4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남구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로 새옷 입었다

광주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8개월여 걸친 공사 끝에 커뮤니티 카페와 영상 제작실, 방음시설을 갖춘 동아리방 등을 갖춘 주민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해 문을 연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1시 봉선동 옛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남구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남구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국비 등 사업비 11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북구, 올해 마지막 희망아카데미 운영

광주 북구가 저명인사 초청강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북구 희망아카데미'의 올해 마지막 순서를 진행한다.

북구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김광호 소비마케팅연구원장의 '도전과 열정 콘서트? Agan A gain'이란 주제로 '제7회 북구 희망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오후 2시 40분부터 약 20분간 '꿈빛하모니연주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김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생존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 간절함과 절박감 고난을 통한 변화와 열정을 이끌어 내는 삶의 태도 등에 대해 얘기할 계획이다.

광산구, 도농상생 연찬회 내일 개최

광주 광산구는 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먹거리 계획을 입안하고, 로컬푸드, 도농교류, 도시농업에 기반한 도농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광산시민농업-도농상생 연찬회'를 21일 개최한다.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오후 3시에 여는 연찬회에서 윤병선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IT위원(건국대 교수)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후 행정, 농업,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연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광산농민, 농업경영인협회, 지역 단위농협, 식생활교육네트워크, 학부모단체, 생활협동조합 도시농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종국 광주전남귀농학교 공동대표가 맡는다.

임행택 기자

광주시 올해의 베스트 성과 '37년 만에 5·18 진상규명 기회'

창의·혁신 분야 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 선정



광주시는 18일 '올해의 베스트 5' 성과 분야 최우수 시책에 5·18 진상규명 절호의 기회(인권평화협력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각 부서에서 응모한 시책 44건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성과와 창의혁신 분야 각 5개씩 '올해의 Best 5'를 선정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시민과 민간평가단, 공무원, 시의원, 출입기자 등이 참여했다.

성과 부문 1위를 차지한 '37년 만에 5·18 진상규명 절호의 기회'는 전일빌딩 헬기사격 신군부 소행 등을 밝혀내 5·18 진상규명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에는 '일을 통해 삶으로 가는 광주정년 드림사업', 3위 '광주형 일자리 국정과제 선정 등 성공

기반 구축', 4위 '전국 최초 광주형 발달장애인 복지 시행 5위 '10년만에 시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이 차지했다.

창의혁신 부문에서는 '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로 최대 시정속원사업 상무소각장 대체열원 해결'이 1위, '대통령 광주공약 발굴 및 국정과제 반영'이 2위로 선정됐다.

3위는 '광주형 시민 참여모델 광주시민총회 개최', 4위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지역형 청소년 진로활동 허브구축, 5위 '전국 최초 경쟁입찰 유도로 553억원 예산 절감' 등으로 나타났다.

발로 뛰며 상수도관 3847km 관망도 완성

광주시 김정환 주무관

22년간 현장 발로 뛰며 3847km에 달하는 상수도 관망 위치도를 완성한 공무원이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정환 주무관(48·기계운영 7급)이다. 김 주무관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제7회 지방행정의 달인' 행사에서 상수도 작동관리 분야 달인으로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복잡한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세도를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공직생활 22년간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는 노력 끝에 3847km에 달하는 상수도 관망도와 3만781개의 개수밸브 등의 정보가 담긴 관망도를 완성했다.

이 관망도는 현재 광주시 전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 주무관은 관망도를 활용해 전국 유일의 블록고압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밸브 개·폐시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해 불응관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시작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등 광주지역 상수도 발전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상수도관의 누수량을 절감하고 유수율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주무관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도관 내부 세척방법 도입과 전지식관로표지기(RFID)를 채택하기도 했다.



서은홍 기자

'가뭄 대응' 농어촌공, 전남권 '지하수자원 조사' 완료

9억4200만원 예산 5개 지구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가뭄 대응 등을 위해 지난 3년 간 추진해 온 '전남권 지하수자원 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19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지하수개발·이용과 체계적 보전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5년 확정된 전남지역 60개 농촌용수구역 조사 대상 중 지난해까지 36개 구역을 조사 완료했다.

올해는 9억4200만원을 들여 해남군 해상·해현 2개 지구와 담양군 담용·담교·담수 3개 지구 등 총 5

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다.

농촌용수구역 조사는 지하수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후화에 따른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보수가 필요한 공공지하수 시설물을 보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본부는 조사 기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 된 가뭄에 대응하고 지하수 수량과 수질관리를 위해 17개 농촌용수구역에 장기적인 지하수 모니터링용 관측공 21개소를 신규설치 했다.

윤석균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하수의 정확한 이용상태 조사 분석을 통해 최적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의 소중한



지하수 수량과 수질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하수 관측공.

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가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통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